

2022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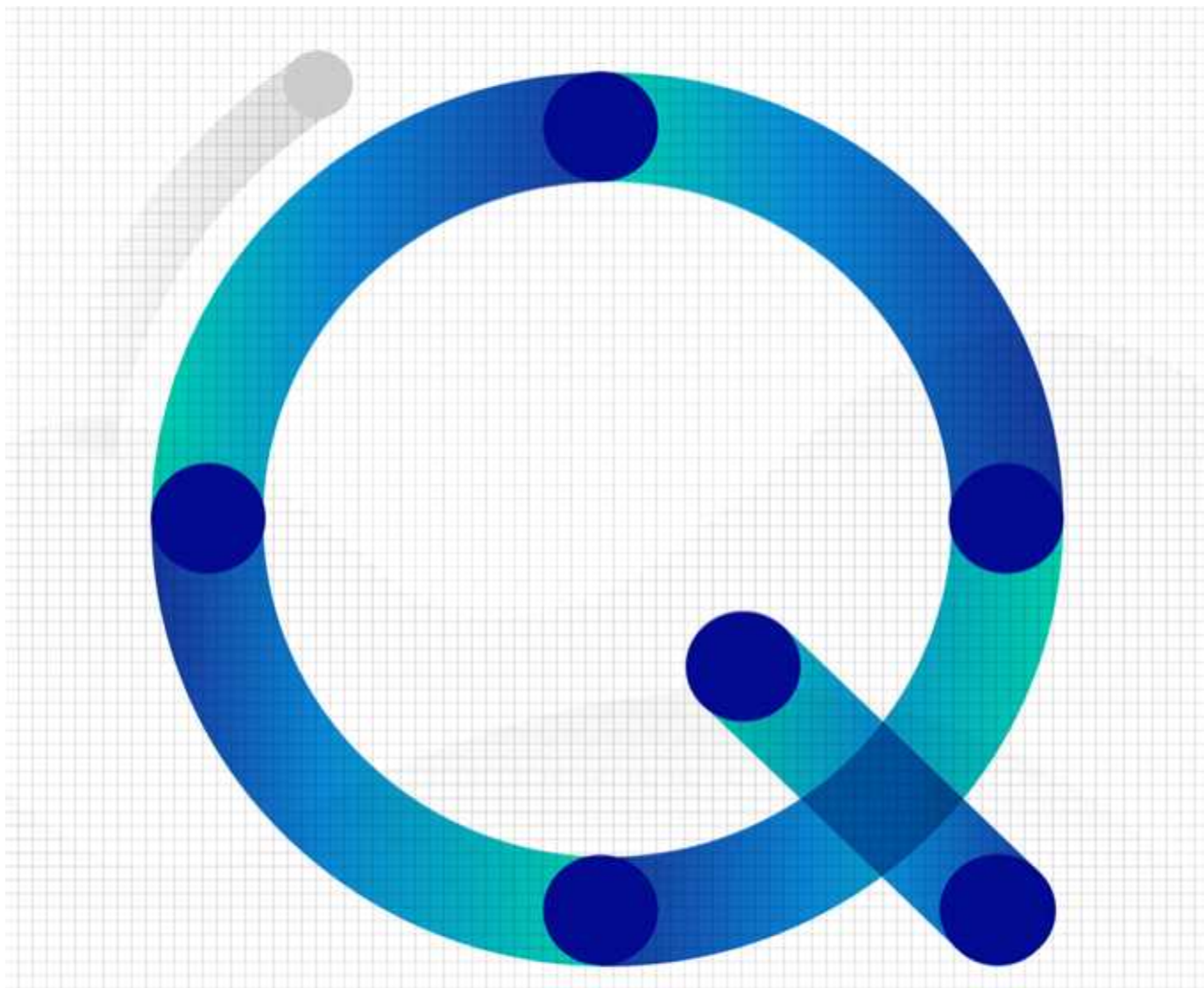
I. 2022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II. 2022년 2분기 수출 전망

III. 수출기업 애로사항

작성

수석연구원 김윤지 (02-6252-3607)





<요 약>

I. 2022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1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18.1% 증가, 전기 대비로는 2.2% 감소

- 2022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464억 달러) 대비 18.1% 증가, 전분기(1,767억 달러) 대비로는 2.2% 감소한 **1,729억 달러**
- 6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며 회복세를 지속했으며, 1분기 수출액 기준 사상 최대치 기록
- 자동차, 선박을 제외한 주력 13개 품목에서 증가세 기록, 중국, 미국, EU, 일본, 아세안, 베트남 등 주요 지역 수출도 모두 증가세 지속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1p 하락한 93 기록

-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해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수출물량 및 계약 등도 하락하면서 업황 평가지수 하락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0				'21				'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업황 평가지수	70	69	98	97	104	99	94	101	93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80	77	97	96	97	96	95	100	90
수출단가 평가지수	100	97	101	100	111	116	118	116	125
생산원가 평가지수	106	103	106	109	127	133	132	133	144
수출물량 평가지수	68	68	100	100	108	103	98	107	97
수출계약 평가지수	68	68	99	101	108	103	98	107	97
자금사정 평가지수	83	83	97	97	101	97	96	99	93

- 수출채산성은 해운,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대부분 업종에서 하락, 섬유류는 상승, 수출물량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하락

산업별·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전기 전자	기계류	철강 /금속	석유 화학	자동차	섬유	플랜트 /해건	신재생 에너지	선박	문화 콘텐츠	대기업	중소 기업
'21.4Q	100	105	99	102	99	94	93	89	107	105	104	100
'22.1Q	95	93	94	90	89	100	88	88	104	88	91	93



II. 2022년 2분기 수출 전망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4.4p, 전기 대비 1.7p 상승

- '22년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33.4로 전년동기 대비 14.4p 상승, 전기 대비로도 1.7p 상승
- 수출선행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6분기 연속, 전기 대비로도 7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어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겠으나, 상승 폭이 축소됨에 따라 수출 증가율은 완화 예상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대상국 경기, 수출용 수입액 등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제조업 신규주문, 기계수주 등은 다소 위축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선행지수	111.1	109.8	99.6	110.8	114.9	119.0	125.3	129.9	131.7	133.4
전년동기대비 증감(p)	△7.1	△3.1	△13.7	△2.9	3.8	9.2	25.7	19.0	16.8	14.4
전기대비 증감(p)	△2.6	△1.3	△10.3	11.3	4.0	4.1	6.3	4.6	1.8	1.7

수출물가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으나 경기 상승세 둔화로 증가폭은 축소

- 수출대상국 경기 : 미국·일본 등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독일·프랑스 등 유로존은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 상승 등으로 성장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은 전년 동기보다는 위축됐지만 여전히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브라질은 경기 둔화세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분기, 성장세 반영, 2010=100) : 161.7('21.2Q)→163.0(3Q)→164.1(4Q)→**165.0('22.1Q)**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물가 상승 압력 및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22년 1분기 57.8로 전기 대비 2.8p 하락, 3월 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봉쇄 영향이 컸던 '20년 4월(27.1)과 5월(31.8) 이후 가장 낮은 53.8 기록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64.6('21.1Q)→65.8(2Q)→66.1(3Q)→60.6(4Q)→**57.8('22.1Q)**

- 가격 경쟁력 : 인플레이션 확대 영향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 긴축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달러 강세가 더 강화돼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기대비 1.8% 상승한 달러당 1,205.0원 기록,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은 상승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14.1('21.1Q)→1,121.2(2Q)→1,157.4(3Q)→1,183.2(4Q)→**1,205.0('22.1Q)**



- **수출물가** : 원유, 비철금속, 농산물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주면서 달러기준 수출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 유지 전망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99.8('21.1Q)→107.0(2Q)→110.4(3Q)→110.6(4Q)→**112.4('22.1Q)**
- **D램 가격**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국 대도시 봉쇄가 이어지고 1분기 컴퓨터, 노트북 수요도 부진해 PC용 D램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2분기 가격은 보합 또는 소폭 하락 전망
 ※ D램 가격 (\$, DDR4_8Gb 고정가격, Omdia) : 3.80('21.2Q)→3.96(3Q)→3.75(4Q)→3.30('22.1Q)→**3.30('22.2Q)**
-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으로 공급 부족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강세 지속 전망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54.8('21.1)→73.2(12)→**83.5('22.1)→92.4(2)→110.9(3)→101.9(4.18)**
- **주요 산업** : 국제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상승하여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공급망 위축 등의 영향이 해소되지 않아 수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전망
- **반도체**는 코로나 특수로 늘어났던 노트북, PC용 수요는 점차 감소하겠지만 데이터 소비 증가로 인한 미국 초대형 데이터센터 서버용 수요는 견조해 수출 증가세는 지속

2022년 2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10% 내외 증가 전망

- 수출물가 및 수출선행지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고, 신규주문 감소 등 주요국 경기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어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0% 내외 증가한 1,730억 달러** 수준 전망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21.1Q) 1,464→(2Q) **1,567**→(3Q) 1,645 →(4Q) 1,767→('22.1Q) 1,729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 ('21.1Q) 12.5→(2Q) **42.0**→(3Q) 26.5→(4Q) 24.5→('22.1Q) 18.1
-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중국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주요도시 봉쇄 지속** 등으로 對中 수출이 위축될 경우 수출 증가폭은 더 축소될 수 있음.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원재료가격 상승'(54.8%), '해상 물류 불안정'(33.3%), '원화환율 불안정'(26.4%) 순 응답

- 원유, 철광석 등 가격 상승 지속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43.2%→54.8%)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분기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해운 물류난 영향으로 '**해상 물류 불안정**'(32.3%→33.3%)도 전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응답
- 환율 상승 영향으로 '**원화환율 불안정**'(15.1%→26.4%) 응답이 증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소비·투자 부진**'(31.2%→19.4%) 및 '**개도국의 저가공세**'(22.7%→16.7%)는 감소



I. 2022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1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18.1% 증가, 전기 대비로는 2.2% 감소

- 2022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464억 달러) 대비 18.1% 증가, 전분기(1,767억 달러) 대비로는 2.2% 감소한 **1,729억 달러**
- 6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며 회복세를 지속했으며, 1분기 수출액 기준 사상 최대치 기록
- 2020년 11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으며, 3월(635억 달러) 수출액은 1956년 무역통계 집계 이래 역대 월 최고 실적 기록
- 자동차, 선박을 제외한 주력 13개 품목에서 증가세 기록, 중국, 미국, EU, 일본, 아세안, 베트남 등 주요 지역 수출도 모두 증가세 지속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단위 : 억 달러,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020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액	1,302	1,103	1,301	1,419	1,464	1,567	1,645	1,767	1,729
증감률(%)	△1.9	△20.3	△3.4	4.2	12.5	42.0	26.5	24.5	18.1
수출물가지수	91.8	87.5	90.5	93.7	99.8	107.0	110.4	110.6	112.4
증감률(%)	△8.2	△11.0	△5.5	△0.3	8.7	22.3	22.0	18.1	12.6
수입물가지수	99.6	91.0	94.5	97.7	107.4	113.6	119.1	123.4	131.4
증감률(%)	△7.6	△15.6	△9.8	△5.9	7.9	24.8	26.1	26.3	22.3
수출물량지수	110.9	99.2	114.3	121.2	116.4	118.5	119.9	126.6	119.4*
증감률(%)	5.9	△10.0	3.0	4.9	5.0	19.4	4.9	4.5	2.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주: 수출입물가지수는 달러화 기준, 수출입물가지수 및 수출물량지수는 2015=100,

*1분기 수출물량지수는 1~2월 평균



D램 가격, 유가 등 수출 물가 상승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수출 호조세 지속

- **반도체(29.1%)**는 D램 가격이 전년대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서버용 D램의 견조한 수요, 파운드리 업황 호조 등으로 21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지속
※ D램가격(\$, DDR4_8Gb, 고정가격) : 3.05('21.1Q)→3.80(2Q)→3.96(3Q)→3.75(4Q)→**3.30('22.1Q)**
- **석유화학(25.6%)**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화학 수출단가 개선, 경기회복으로 인한 합성수지, 합성고무 수요 증가로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
- **일반기계(5.7%)**는 주력산업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공작기계 수요 증가 및 미국 등 선진시장의 인프라 투자 확대 영향으로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
- **자동차(△0.1%)**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CIS 및 EU 수출이 줄어 수출 감소세로 전환
- **선박(△45.3%)**은 전년 1분기 높은 수출 기록(73억 달러)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 전환
- **무선통신기기(17.4%)**는 신규 프리미엄폰 수요 확대 및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스마트폰 부품 수출 증가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 유지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0. 1/4	2/4	3/4	4/4	'21. 1/4	2/4	3/4	4/4	'22. 1/4	1월	2월	3월
반도체	0.6	△3.0	6.9	18.7	14.0	29.7	36.3	34.6	29.1	24.2	24.0	38.0
석유화학	△13.3	△27.8	△16.4	△7.7	26.1	80.0	64.0	54.1	25.6	40.6	24.8	14.8
일반기계	△0.3	△18.7	△10.8	△5.2	△1.4	21.1	15.8	9.9	5.7	13.8	0.8	3.0
자동차	△11.6	△41.5	1.7	1.1	31.4	74.7	6.5	4.9	△0.1	2.3	9.1	△9.7
석유제품	△12.2	△58.7	△43.8	△44.7	△17.0	110.3	71.6	113.7	83.3	96.7	66.8	90.1
선박류	9.8	△30.6	△8.2	32.1	28.2	11.8	△1.4	22.9	△45.3	△77.9	15.8	△35.9
무선통신기기	△1.3	△22.6	△14.1	11.8	21.4	38.5	25.7	12.2	17.4	△0.3	8.2	44.5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경기호조로 중국·미국·아세안 수출 증가세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로 CIS 3월 수출은 감소

- **중국 수출(15.4%)**은 현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모바일용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증설을 위한 서버용 반도체 수출 증가, 석유화학 수출 단가 강세 지속 등으로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
- **미국(13.5%)**은 경기 확장세로 인한 건설·공작기계 수출 호조, PC·노트북 등 컴퓨터 기기 수요 증가 등이 지속되면서 19개월 연속 수출 증가
- **EU(5.7%)**는 철강 수출 등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한 자동차 수출 감소 등으로 수출 증가 폭 축소
- **아세안(37.5%)**은 경기 확장으로 인한 반도체 수출 호조,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제품 단가 동반 상승 등으로 증가세 유지
- **CIS(8.2%)**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러 제재로 인한 자동차 및 차부품, 일반기계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3월 수출 37.7% 감소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0. 1/4	2/4	3/4	4/4	'21. 1/4	2/4	3/4	4/4	'22. 1/4	1월	2월	3월
중국	△8.5	△4.5	2.6	△0.4	25.0	22.9	19.8	24.2	15.4	13.3	16.1	16.6
미국	5.5	△17.5	10.2	7.1	19.9	52.0	27.4	22.6	13.5	1.8	20.9	19.9
일본	0.1	△20.7	△16.5	△9.9	△4.9	33.0	28.9	27.7	14.8	16.9	12.7	14.4
아세안	3.7	△25.4	△9.7	6.2	△4.8	47.4	26.4	28.4	37.5	29.4	38.4	44.4
EU(27)	△9.1	△28.4	△7.7	9.6	30.9	56.4	32.3	18.5	5.7	12.9	8.6	△2.0
베트남	3.0	△20.1	1.4	17.4	6.3	43.2	13.6	12.3	30.5	14.2	33.9	45.3
중남미	△18.7	△52.5	△26.6	0.4	4.5	84.1	45.0	17.3	24.8	31.1	18.0	25.6
CIS	2.5	△27.6	△22.0	△16.6	△13.8	39.2	31.3	26.9	8.2	27.4	45.2	△37.7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원유 등 원자재, 철강제품 가격 상승으로 수출입 물가 전년동기 대비 상승 지속

- **수출물가(달러화 기준)**은 석유제품, 철강제품 등의 가격 인상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2.6%**, 전기 대비로도 **1.6%** 상승
- 석유제품은 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67.6%**, 전기 대비로도 **20.2%** 상승, 철강제품은 전년동기 대비 **33.5%** 상승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1.8%** 감소해 상승세 진정
-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60.1('21.1Q)→ 66.9(2Q)→ 71.7(3Q)→ 78.4(4Q)→ **95.6('22.1Q)**
- **수입물가(달러화 기준)**도 원유와 철강제품 등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59.2%**, **28.8%**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2.3%**, 전기 대비 **6.5%** 상승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가. 전체 수출업황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1p 하락

-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1p, 전기 대비 8p 하락한 93으로 체감 수출업황 악화
-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해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수출물량 및 계약 등도 하락하면서 업황 평가지수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물가 상승으로 수출단가 평가(125, 전기대비 9p ↑)는 상승했으나 원자재 가격 등 수입물가 상승으로 생산원가(144, 전기대비 11p ↑)가 더 크게 상승해, 종합적인 수출채산성은 전기 대비 10p 하락한 90
- (수출물량 평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11p, 전기 대비 10p 하락한 97 기록
- (수출계약 평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11p, 전기 대비 10p 하락한 97 기록
- (자금사정 평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8p, 전기 대비 6p 하락한 93 기록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0				'21				'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업황평가지수	70	69	98	97	104	99	94	101	93
수출채산성평가지수	80	77	97	96	97	96	95	100	90
수출단가평가지수	100	97	101	100	111	116	118	116	125
생산원가평가지수	106	103	106	109	127	133	132	133	144
수출물량평가지수	68	68	100	100	108	103	98	107	97
수출계약평가지수	68	68	99	101	108	103	98	107	97
자금사정평가지수	83	83	97	97	101	97	96	99	93

주: <부록>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참고

나. 규모별 · 산업별 · 수출 지역별 수출업황

기업규모별 : 대기업(104p→91p) · 중소기업(100p→93p) 모두 전기대비 하락

- 수출채산성은 대기업이 11p, 중소기업은 7p 하락하였고, 수출물량은 대기업은 25p, 중소기업은 7p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기업 업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



산업별 : 기계류(105p→93p), 석유화학(102p→90p) 등 대부분 업종에서 수출업황 하락

- 수출채산성은 해운(116p→89p), 석유화학(103p→88p), 신재생에너지(89p→75p) 등 대부분 업종에서 하락, 섬유류(95p→100p)는 상승
- 수출물량도 문화콘텐츠(110p→88p), 석유화학(111p→96p), 신재생에너지(75p→63p), 플랜트/해외건설(100p→88p)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하락, 섬유류(100p→104p)만 상승

수출지역별 : 유로존(102p→90p), 중동(94p→82p)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업황 하락

- 수출채산성은 중동(100p→68p), 중국(104p→92p) 등에서 전기대비 크게 하락
- 수출물량은 중동(106p→82p), 유로존(112p→98p) 등에서 전기대비 크게 하락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수출업황 지수		수출채산성 지수		수출물량 지수	
			'21. 4/4	'22. 1/4	'21. 4/4	'22. 1/4	'21. 4/4	'22. 1/4
전 체			101	93	100	90	107	97
규모	대 기 업		104	91	109	88	114	89
	중 소 기 업		100	93	98	91	105	98
	전 기 전 자		100	95	99	96	105	99
산업	기 계 류		105	93	105	93	112	101
	철 강 / 비 철 금 속		99	94	99	94	108	102
	석 유 화 학		102	90	103	88	111	96
	자 동 차		99	89	95	84	104	93
	섬 유 류		94	100	95	100	100	104
	플 랜 트 / 해 외 건 설		93	88	100	86	100	88
	신 재 생 에 너 지		89	88	89	75	75	63
	선 박		107	104	105	96	107	106
	문 화 콘 텐 츠		105	88	105	88	110	88
	해 운		113	89	116	89	116	104
수출 지역	북 미		102	96	101	95	110	102
	중 국		101	95	104	92	104	98
	일 본		100	95	97	92	107	100
	유 로 존		102	90	101	94	112	98
	동 남 아		98	93	97	85	95	94
	중 남 미		95	83	76	75	92	79
	중 동		94	82	100	68	106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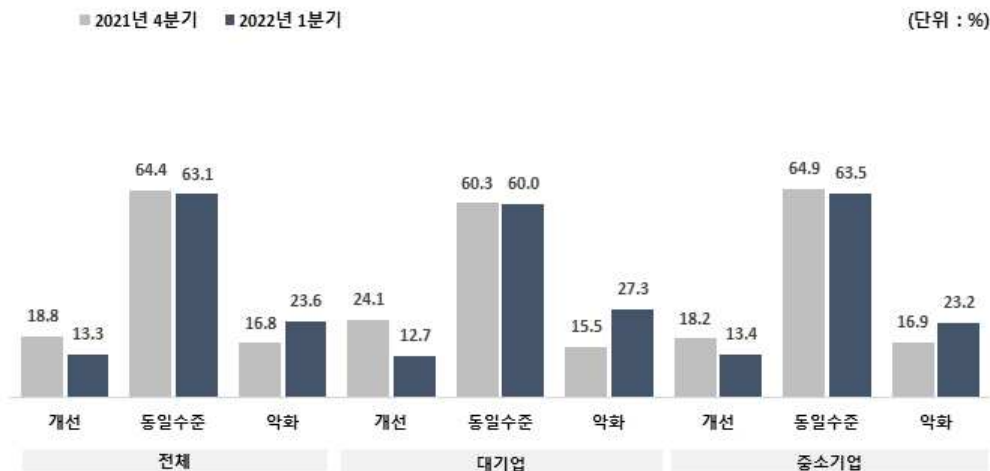
3. 수출기업 업황 평가 분석

가. 수출업황 평가 분포 현황 (응답 기업 504개사)

수출업황 '개선' 13.3%, '동일 수준' 63.1%, '악화' 23.6%로 전기 대비 '악화' 증가, '개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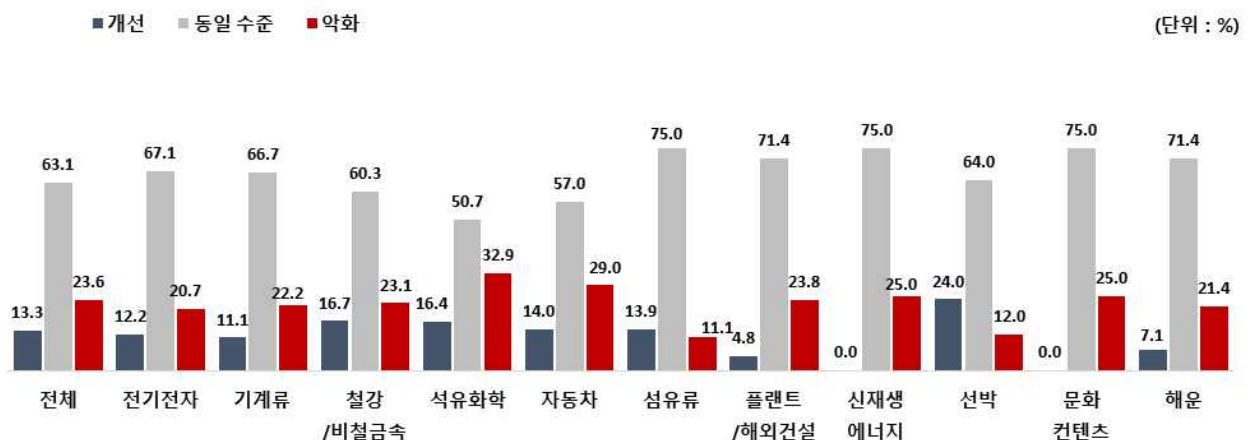
- 전기 대비 '개선' 응답은 5.5%p 감소, '악화' 응답은 6.8%p 증가해 수출업황 부정적 평가 증가
- (규모별) 전기 대비 '악화' 응답 비율은 대기업은 11.8%p 증가, 중소기업은 6.3%p 증가, '개선' 응답 비율은 대기업은 11.4%p 감소, 중소기업은 4.8%p 감소해 대기업의 평가가 더 부정적

1분기 수출업황 평가 : 기업규모별



- (산업별) 문화콘텐츠(0%→25.0%), 석유화학(20.0%→32.9%), 자동차(17.8%→29.0%) 등은 '악화' 응답이 전기 대비 크게 증가, 섬유류(9.5%→13.9%), 선박(21.4%→24.0%)은 '개선' 증가

1분기 수출업황 평가 : 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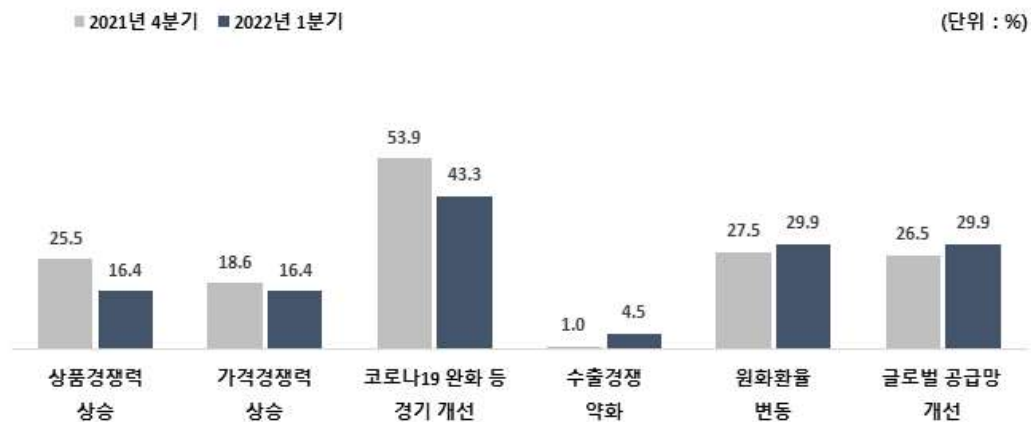


나. 수출업황 '개선' 원인 (전체 설문 기업 504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67개사, 복수응답)

'코로나19 완화 등 경기개선' 43.3% , '원화환율 변동' 및 '글로벌 공급망 개선' 각각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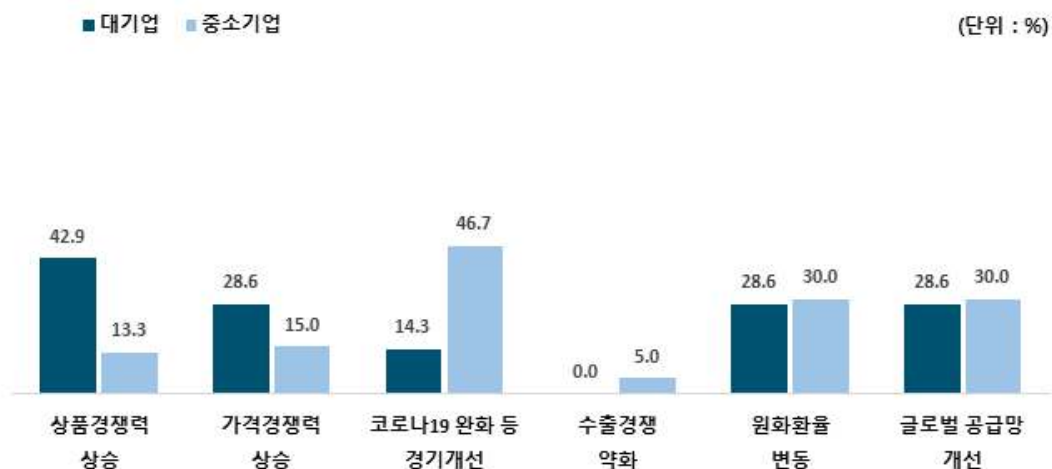
- '코로나19 완화 등 경기개선'(53.9%→43.3%)이 응답률은 감소했으나 전 분기에 이어 **최고 비중**, 환율 상승 영향으로 '원화환율 변동' (27.5%→29.9%) 응답 증가, '글로벌 공급망 개선'(26.5%→29.9%)도 전기 대비 응답 증가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전체



- (규모별) 대기업은 '상품경쟁력 상승'(42.9%)을,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완화 등 경기개선'(46.7%)을 업황 개선 원인으로 가장 많이 응답
- 대기업은 '가격경쟁력 상승', '원화환율 변동' 및 '글로벌 공급망 개선'을 각각 28.6%인 두번째로, 중소기업은 '원화환율 변동'과 '글로벌 공급망 개선'을 각각 30.0%인 두번째로 많이 응답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기업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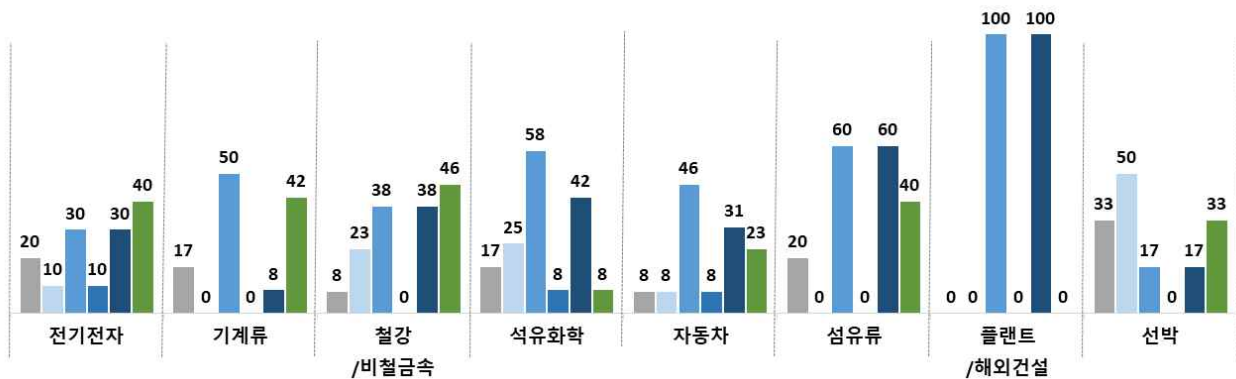




- (산업별) 플랜트/해외건설(100%), 석유류(60%), 석유화학(58%), 기계류(50%), 자동차(46%) 등이 '코로나19 완화 등 경기개선'을 업황 개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
- '글로벌 공급망 개선'은 철강/비철금속(46%), 기계류(42%), 전기전자(40%), 석유류(40%), 선박(33%) 등에서 높게 응답
- '원화환율 변동'은 플랜트/해외건설(100%), 석유류(60%), 석유화학(42%)에서 응답 비중이 높고, '가격 경쟁력 상승'은 선박(50%), 석유화학(25%), 철강/비철금속(23%) 등에서 응답 비중이 높음.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산업별

■ 상품경쟁력 상승 ■ 가격경쟁력 상승 ■ 코로나19 완화 등 경기개선 ■ 수출경쟁 약화 ■ 원화환율 변동 ■ 글로벌 공급망 개선 (단위 : %)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개선' 원인

(단위 : %)

구분		상품경쟁력 상	가격경쟁력 상	코로나 19 완화 기개 개선	수출경쟁 화	원화환 율변 동	글로벌 공급 망선
전 체		16.4	16.4	43.3	4.5	29.9	29.9
규모	대 기 업	42.9	28.6	14.3	0.0	28.6	28.6
	중 소 기 업	13.3	15.0	46.7	5.0	30.0	30.0
산업	전 기 전 자	20.0	10.0	30.0	10.0	30.0	40.0
	기 계 류	16.7	0.0	50.0	0.0	8.3	41.7
	철 강 / 비 철	7.7	23.1	38.5	0.0	38.5	46.2
	석 유 화 학	16.7	25.0	58.3	8.3	41.7	8.3
	자 동 차	7.7	7.7	46.2	7.7	30.8	23.1
	섬 유 류	20.0	0.0	60.0	0.0	60.0	40.0
	플랜트/해건	0.0	0.0	100.0	0.0	100.0	0.0
	선 박	33.3	50.0	16.7	0.0	16.7	33.3
	해 운	0.0	100.0	0.0	0.0	0.0	0.0
수출 지역	북 미	16.7	12.5	58.3	4.2	33.3	25.0
	중 국	29.4	29.4	29.4	0.0	23.5	41.2
	일 본	14.3	14.3	28.6	14.3	0.0	14.3
	유 로 존	0.0	0.0	83.3	0.0	50.0	50.0
	동 남 아	9.1	18.2	9.1	9.1	36.4	27.3
	중 남 미	0.0	0.0	100.0	0.0	100.0	0.0
	중 동	0.0	0.0	100.0	0.0	0.0	0.0

주 : 전체 설문 504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67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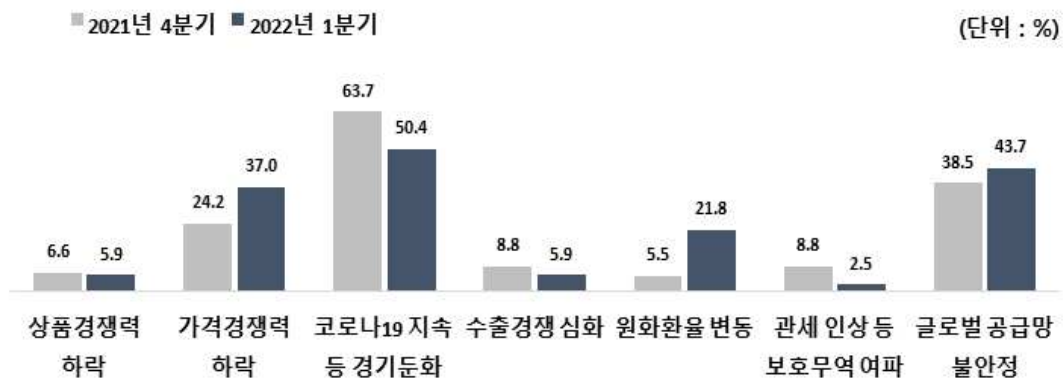


다. 수출업황 '악화' 원인 (전체 설문 504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19개사, 복수응답)

'코로나19 지속 등 경기둔화'(50.4%),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43.7%) 최다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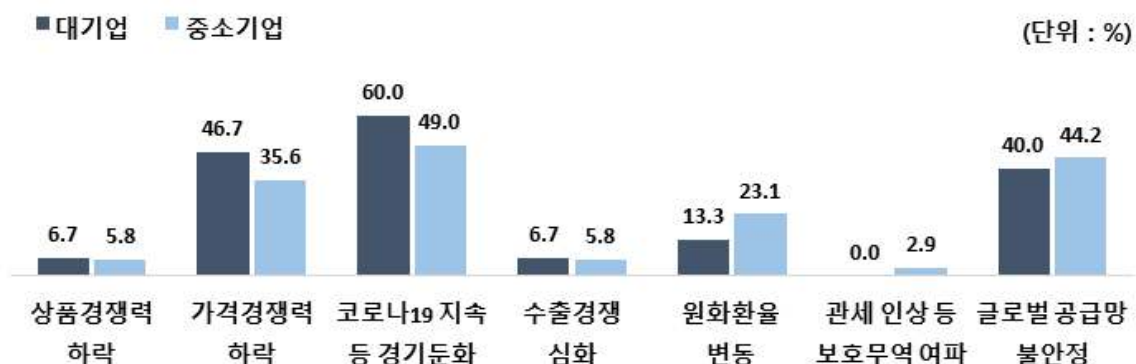
- '코로나19 지속 등 경기둔화'(63.7%→50.4%)가 전분기에 이어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38.5%→43.7%)은 전기에 비해 응답률이 5.2%p 증가하면서 두 번째로 높음.
- '코로나19 지속 등 경기둔화'는 주요 수출국이 북미(63.6%), 중국(52.0%), 중동(50.0%)인 기업에서 많이 응답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선박(66.7%), 기계류(54.2%) 산업에서 응답 증가

1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전체



- (규모별) 대기업(60.0%), 중소기업(49.0%) 모두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지속 등 경기둔화'를 가장 많이 선택
- '코로나19 지속 등 경기둔화' 응답은 대기업(44.4%→60.0%)은 전기 대비 증가했으나, 중소기업(65.9%→49.0%) 감소,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대기업(22.2%→40.0%), 중소기업(40.2%→44.2%) 모두 증가

1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기업규모별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악화' 원인

(단위 : %)

구분		상 경 하	품 경 하	가 경 하	격 경 하	코로나19 지속 등 경기둔화	수 경 심	출 경 화	원 환 변	화 울 동	관세인상 등 보호무역	글로벌 공급망 안정
전 체		5.9		37.0		50.4	5.9		21.8		2.5	43.7
규 모	대 기 업	6.7		46.7		60.0	6.7		13.3		0.0	40.0
	중 소 기 업	5.8		35.6		49.0	5.8		23.1		2.9	44.2
산 업	전 기 전 자	5.9		47.1		47.1	5.9		17.6		5.9	41.2
	기 계 류	4.2		33.3		58.3	8.3		16.7		0.0	54.2
	철 강 / 비 철	5.6		50.0		33.3	11.1		27.8		11.1	33.3
	석 유 화 학	12.5		29.2		54.2	0.0		25.0		0.0	45.8
	자 동 차	7.4		29.6		48.1	7.4		25.9		3.7	44.4
	섬 유 류	0.0		25.0		100.0	0.0		25.0		0.0	50.0
	플 란트/해 건	0.0		40.0		60.0	0.0		0.0		0.0	40.0
	신재생에너지	0.0		33.3		66.7	33.3		33.3		0.0	33.3
	선 박	0.0		66.7		0.0	0.0		33.3		0.0	66.7
	문 화 콘 텐 츠	0.0		0.0		50.0	0.0		50.0		0.0	0.0
	해 운	0.0		66.7		0.0	0.0		66.7		0.0	33.3
수출 지역	북 미	6.1		30.3		63.6	0.0		21.2		3.0	42.4
	중 국	4.0		28.0		52.0	8.0		24.0		4.0	40.0
	일 본	9.1		45.5		36.4	9.1		45.5		0.0	36.4
	유 로 존	7.7		46.2		46.2	15.4		0.0		0.0	61.5
	동 남 아	4.5		36.4		40.9	4.5		27.3		0.0	50.0
	중 남 미	25.0		50.0		25.0	0.0		25.0		0.0	50.0
	중 동	0.0		50.0		50.0	25.0		0.0		0.0	25.0

주 : 전체 설문 504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19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Ⅱ. 2022년 2분기 수출 전망

1. 수출선행지수 추이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4.4p, 전기 대비 1.7p 상승

- '22년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33.4로 전년동기 대비 14.4p 상승, 전기 대비로도 1.7p 상승
- 수출선행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6분기 연속, 전기 대비로도 7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어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겠으나, 상승 폭이 축소됨에 따라 수출 증가율은 완화 예상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대상국 경기, 수출용 수입액 등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제조업 신규주문, 기계수주 등은 다소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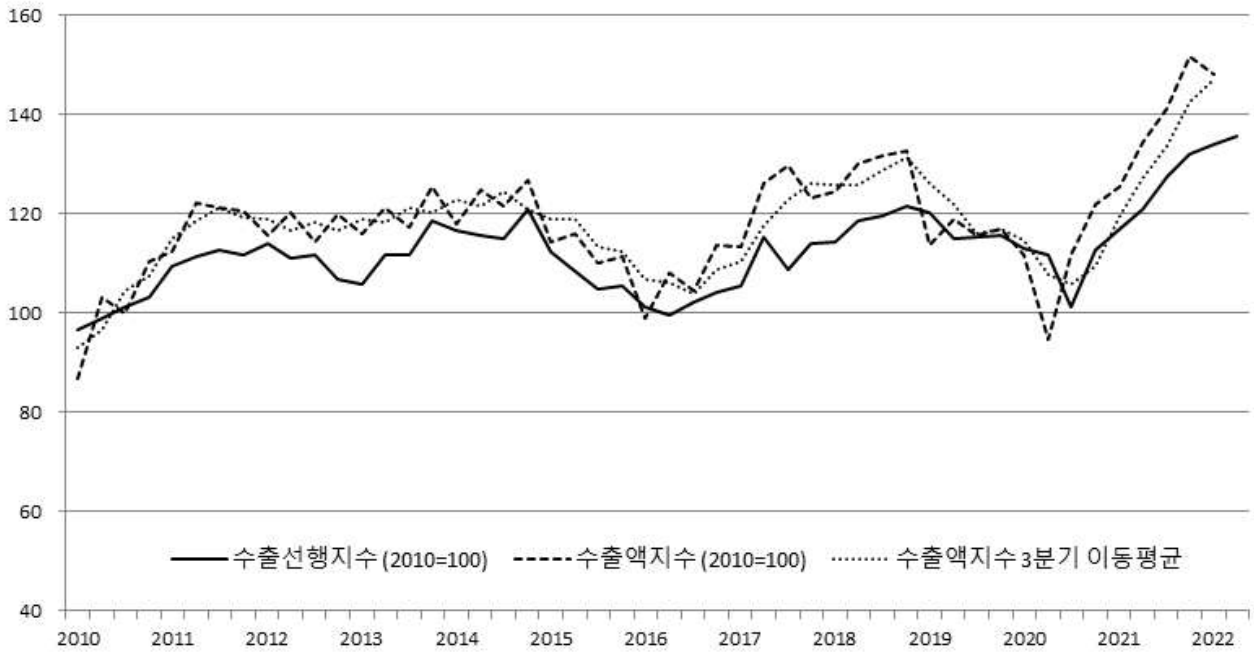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선행지수	111.1	109.8	99.6	110.8	114.9	119.0	125.3	129.9	131.7	133.4
전년동기대비 증감(p)	△7.1	△3.1	△13.7	△2.9	3.8	9.2	25.7	19.0	16.8	14.4
전기대비 증감(p)	△2.6	△1.3	△10.3	11.3	4.0	4.1	6.3	4.6	1.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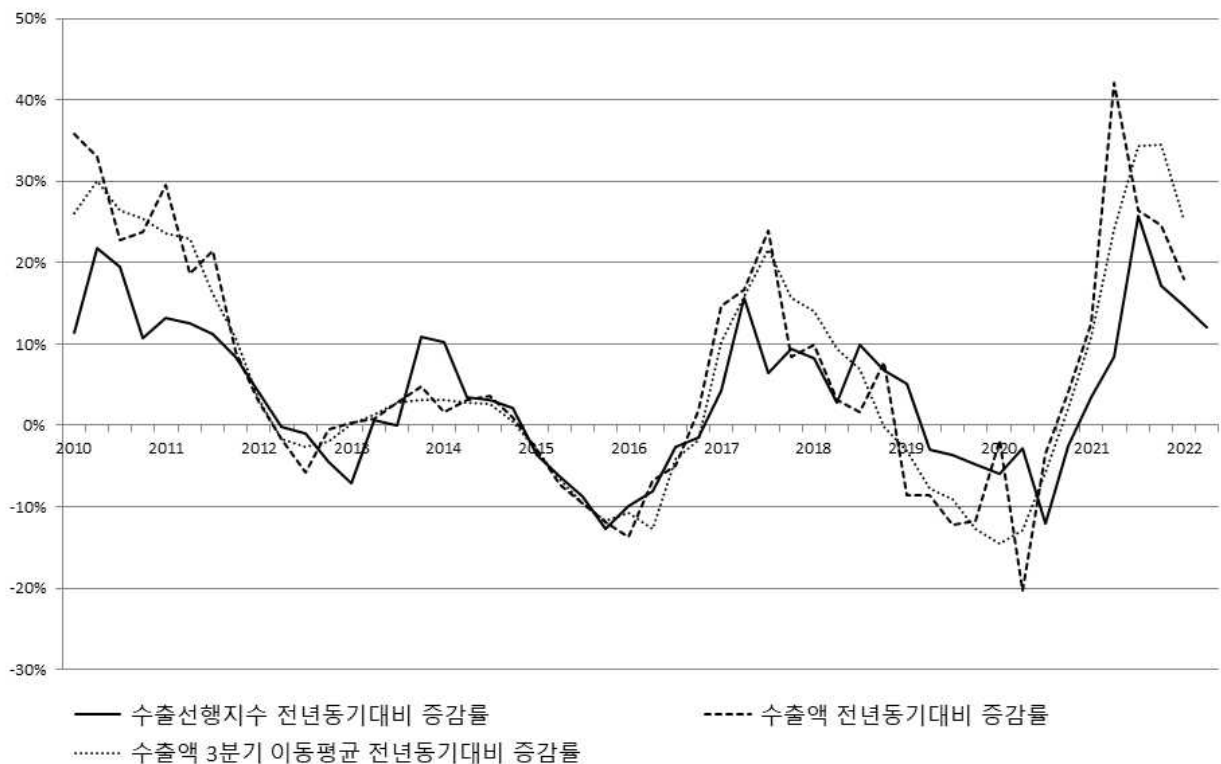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지수 추이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수출물가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으나 경기 상승세 둔화로 증가폭은 축소

- 수출대상국 경기 : 미국·일본 등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독일·프랑스 등 유로존은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 상승 등으로 성장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은 전년 동기보다는 위축됐지만 여전히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브라질은 경기 둔화세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분기, 성장세 반영, 2010=100) : 161.7('21.2Q)→163.0(3Q)→164.1(4Q)→**165.0('22.1Q)**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월) : 158.9('21.1)→164.7(12)→**164.6('22.1)→165.1(2)→165.6(3)**

- WTO 상품무역지수 : 차량용 반도체 공급 이슈 등으로 자동차 무역 차질이 지속되고 해운 물류 적체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상품무역지수는 '21년 4분기 99.5에서 '22년 1분기 98.7로 하락

※ Goods Trade Barometer*(WTO) : 103.9('21.1Q)→109.7(2Q)→110.4(3Q)→99.5(4Q)→**98.7('22.1Q)**

* 100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무역 확장세, 하회하면 감소세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물가 상승 압력 및 공급망 차질로 '22년 1분기 57.8로 전기 대비 2.8p 하락, 3월 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봉쇄 영향이 컸던 '20년 4월(27.1)과 5월(31.8) 이후 가장 낮은 53.8 기록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에서 매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로, 우리나라 수출액에 대해 3~6개월 선행성을 나타냄.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64.6('21.1Q)→65.8(2Q)→66.1(3Q)→60.6(4Q)→**57.8('22.1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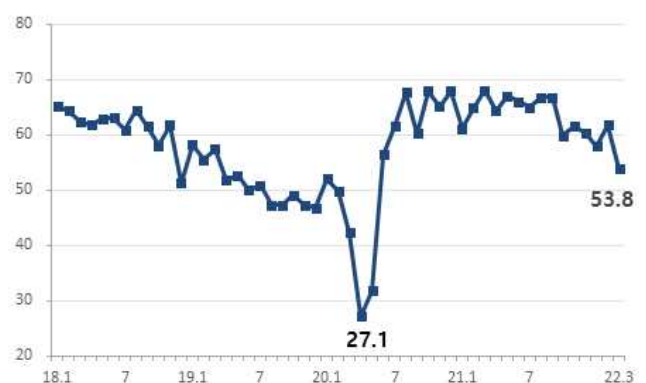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월) : 59.8('21.10)→61.5(11)→60.4(12)→**57.9('22.1)→61.7(2)→53.8(3)**

수출 대상국 경기지수



자료 : OECD 선행지수 활용 자체 산출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자료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원유·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수입물가의 전반적 상승으로 전기 대비로는 7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로도 4분기 연속 상승한 135.3 기록, 증가율은 소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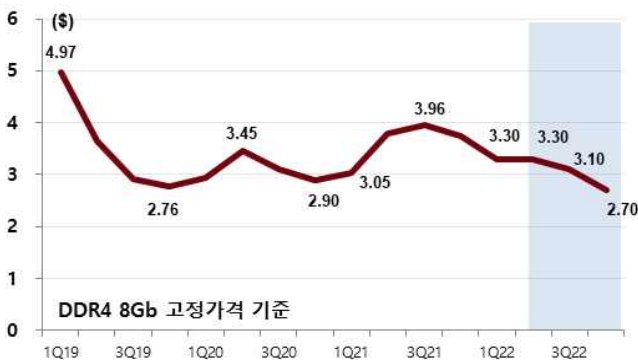
※ 수출용 수입액지수(분기, 2010=100): 90.6('21.1Q)→103.9(2Q)→117.1(3Q)→126.9(4Q)→**135.3('22.1Q)**

※ 수출용 수입액지수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 △5.9('21.1Q)→78.5(2Q)→62.6(3Q)→65.5(4Q)→**49.3('22.1Q)**



- **가격 경쟁력** : 인플레이션 확대 영향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 긴축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달러 강세가 더 강화돼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기대비 1.8% 상승한 달러당 1,205.0원** 기록,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은 상승
 -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계 물가 상승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 연준은 5월부터 기준금리를 0.5%p씩 올리는 '빅스텝' 및 매달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어 원화 가치는 당분간 약세가 유지될 전망
 -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14.1('21.1Q)→1,121.2(2Q)→1,157.4(3Q)→1,183.2(4Q)→**1,205.0('22.1Q)**
 -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097.5('21.1)→1,169.5(9)→ 1,183.7(12)→ **1,194.0('22.1)→ 1,198.3(2)→ 1,221.0(3)**
- **수출물가** : 원유, 비철금속, 농산물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주면서 달러기준 수출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 유지 전망
 -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99.8('21.1Q)→107.0(2Q)→110.4(3Q)→110.6(4Q)→**112.4('22.1Q)**
 - ※ 수출물가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 달러기준) : 8.7('21.1Q)→22.3(2Q)→22.0(3Q)→18.1(4Q)→**12.6('22.1Q)**
- **D램 가격**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국 대도시 봉쇄가 이어지고 1분기 컴퓨터, 노트북 수요도 부진해 PC용 D램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2분기 가격은 보합 또는 소폭 하락 전망
 - ※ D램 가격 (\$, DDR4_8Gb 고정가격, Omdia) : 3.80('21.2Q)→3.96(3Q)→3.75(4Q)→3.30('22.1Q)→**3.30'(2Q)**
-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으로 공급 부족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강세 지속 전망
 -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54.8('21.1)→73.2(12)→**83.5('22.1)→92.4(2)→110.9(3)→101.9(4.18)**

D램 가격 전망



자료 : Omdia

유가 추이



자료 : Petronet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가격)



- **주요 산업** : 국제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상승하여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공급망 위축 등의 영향이 해소되지 않아 수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전망
- **반도체**는 코로나 특수로 늘어났던 노트북, PC용 수요는 점차 감소하겠지만 데이터 소비 증가로 인한 미국 초대형 데이터센터 서버용 수요는 견조해 수출 증가세는 지속
-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이 이어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럽, CIS 수출 차질 등의 영향까지 더해져 수출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2022년 2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10% 내외 증가 전망

- 수출물가 및 수출선행지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고, 신규주문 감소 등 주요국 경기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어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0% 내외 증가한 1,730억 달러** 수준 전망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21.1Q) 1,464 → **(2Q) 1,567** → (3Q) 1,645 → (4Q) 1,767 → ('22.1Q) 1,729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 ('21.1Q) 12.5 → **(2Q) 42.0** → (3Q) 26.5 → (4Q) 24.5 → ('22.1Q) 18.1

-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중국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 지속 등으로 對中 수출이 위축될 경우 수출 증가폭은 더 축소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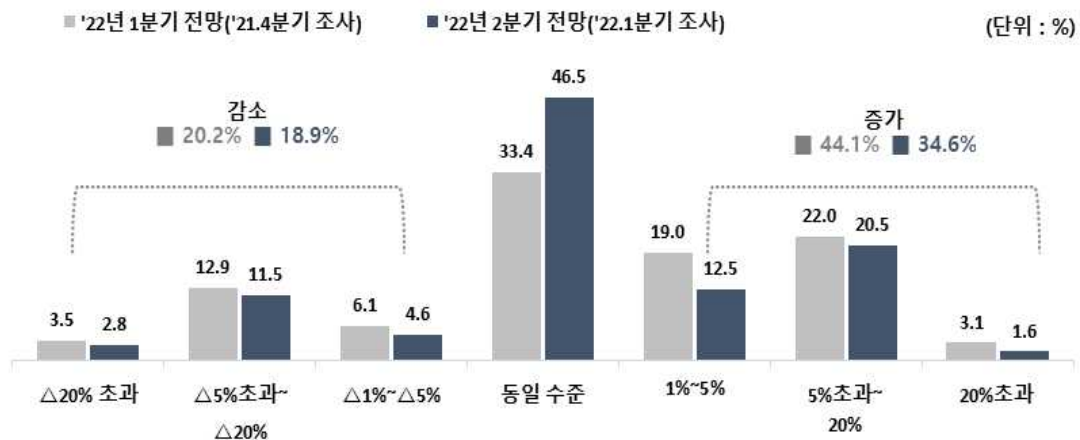


2. 수출기업의 '22년 2분기 수출액 전망 (응답 기업 504개사)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증가' 전망 34.6%, '동일 수준' 전망 46.5% 등 6분기 연속 증가세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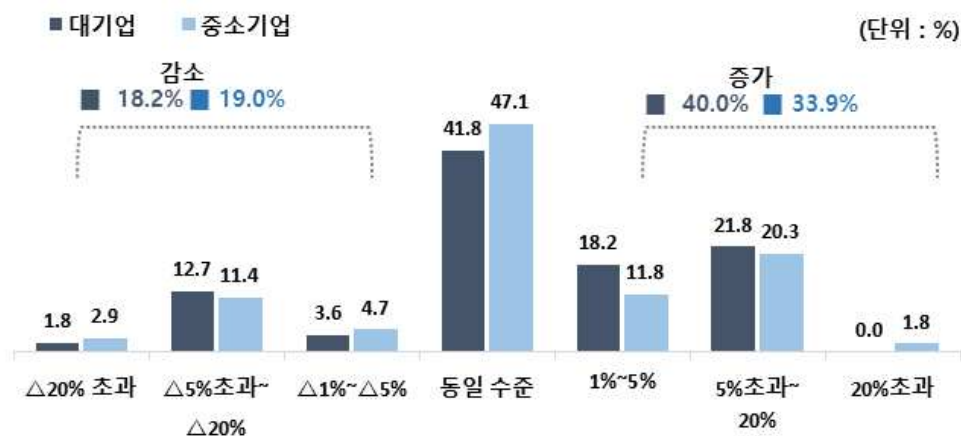
- 전년동기 대비 '증가'(34.6%) 전망이 전기보다는 감소했으나, '동일 수준' 전망이 46.5%로 13.1%p 증가하고, '감소' 전망이 18.9%로 1.3%p 감소해 수출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나타남.
- 수출액 '증가' 전망 응답률(44.1%→34.6%)이 전기보다 9.5%p 감소해 '22년 1분기보다는 수출 증가폭 축소 가능

'22년 2분기 수출액 전망 (전년동기 대비)



- (규모별) 대기업(41.8%)과 중소기업(47.1%) 모두 '동일 수준'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대기업의 '증가' 전망 응답률이 중소기업보다 6.1%p 높고, '감소' 전망 응답률도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0.8%p 낮아 대기업의 수출 전망이 중소기업보다 더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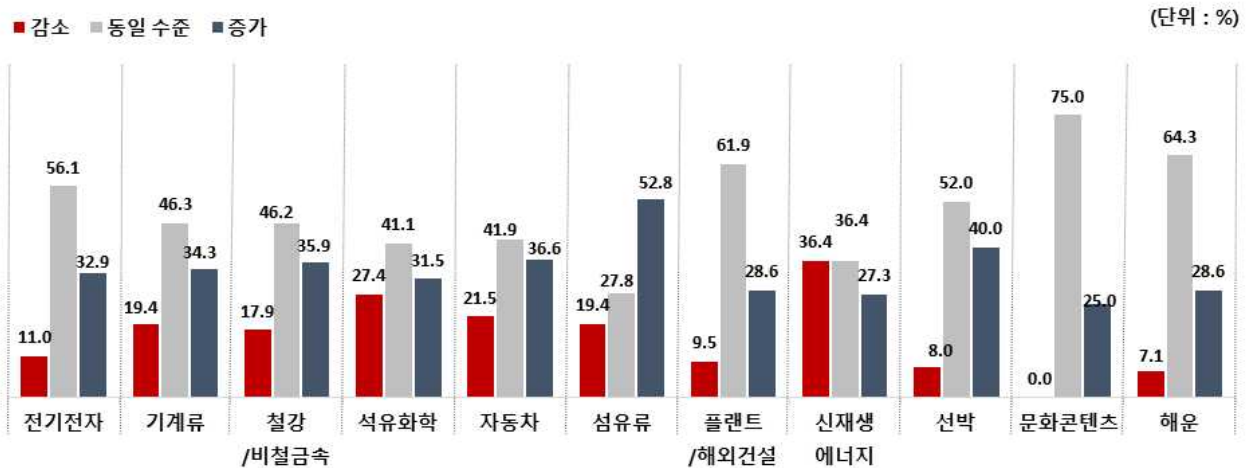
'22년 2분기 수출액 전망 : 기업규모별 (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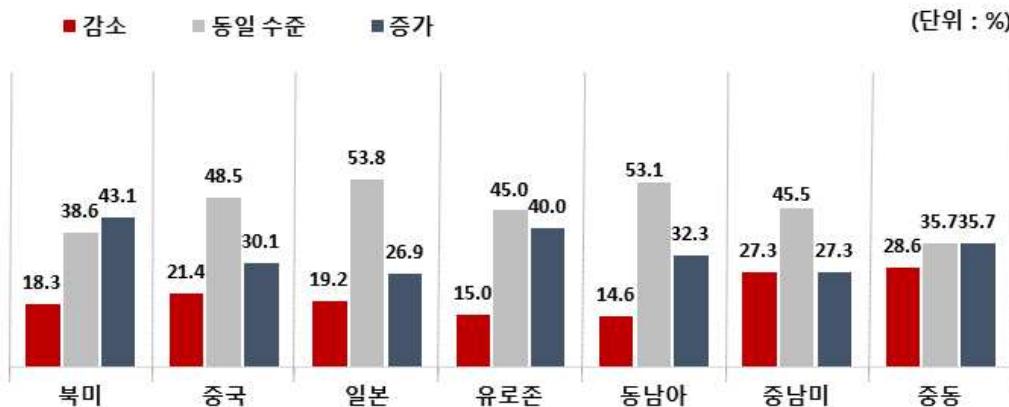
- (산업별) 대부분의 산업이 '동일 수준'이 가장 높은 가운데, 석유류(52.8%), 선박(40.0%), 자동차(36.6%), 철강/비철금속(35.9%), 기계류(34.3%)는 타산업 대비 '증가' 전망이 높은 편
- 전년동기 대비 '감소' 전망 응답 비율이 높은 산업은 신재생에너지(36.4%), 석유화학(27.4%)

'22년 2분기 수출액 전망 : 산업별 (전년동기 대비)



- (수출 지역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년동기 대비 '동일 수준' 전망이 가장 높은 가운데 '증가' 전망 비율은 북미(43.1%), 유로존(40.0%), 중동(35.7%), 중국(30.1%) 순으로 높음.
- '감소' 전망은 중동(22.2%→28.6%), 중남미(26.3%→27.3%), 일본(12.7%→19.2%) 등에서 응답 비율이 전기 설문에 비해 증가하며 높게 나타남.

'22년 2분기 수출액 전망 : 수출 지역별 (전년동기 대비)





'22년 2분기 수출액 증감률 전망 (전년동기 대비)

(단위 : %)

구분		△20 % 초과	△5%초과 ~ △20%	△1% ~ △5%	동일 수준	1% ~ 5%	5% 초과 ~ 20%	20% 초과
전 체		2.8	11.5	4.6	46.5	12.5	20.5	1.6
규 모	대 기 업	1.8	12.7	3.6	41.8	18.2	21.8	0.0
	중 소 기 업	2.9	11.4	4.7	47.1	11.8	20.3	1.8
산 업	전 기 전 자	0.0	8.5	2.4	56.1	17.1	14.6	1.2
	기 계 류	5.6	11.1	2.8	46.3	13.9	19.4	0.9
	철 강/비철금속	3.8	9.0	5.1	46.2	11.5	21.8	2.6
	석 유 화 학	2.7	19.2	5.5	41.1	13.7	17.8	0.0
	자 동 차	1.1	14.0	6.5	41.9	15.1	20.4	1.1
	섬 유 류	2.8	11.1	5.6	27.8	5.6	44.4	2.8
	플 란 트 / 해 건	0.0	4.8	4.8	61.9	4.8	23.8	0.0
	신 재 생 에 너 지	9.1	18.2	9.1	36.4	0.0	18.2	9.1
	선 박	0.0	4.0	4.0	52.0	4.0	36.0	0.0
	문 화 콘 텐 츠	0.0	0.0	0.0	75.0	12.5	12.5	0.0
	해 운	0.0	7.1	0.0	64.3	7.1	14.3	7.1
수출 지역	북 미	1.3	13.1	3.9	38.6	11.8	30.1	1.3
	중 국	2.9	11.7	6.8	48.5	13.6	15.5	1.0
	일 본	0.0	13.5	5.8	53.8	5.8	21.2	0.0
	유 로 존	5.0	3.3	6.7	45.0	16.7	20.0	3.3
	동 남 아	3.1	10.4	1.0	53.1	14.6	14.6	3.1
	중 남 미	9.1	9.1	9.1	45.5	18.2	9.1	0.0
	중 동	7.1	14.3	7.1	35.7	14.3	21.4	0.0

주 : 총 504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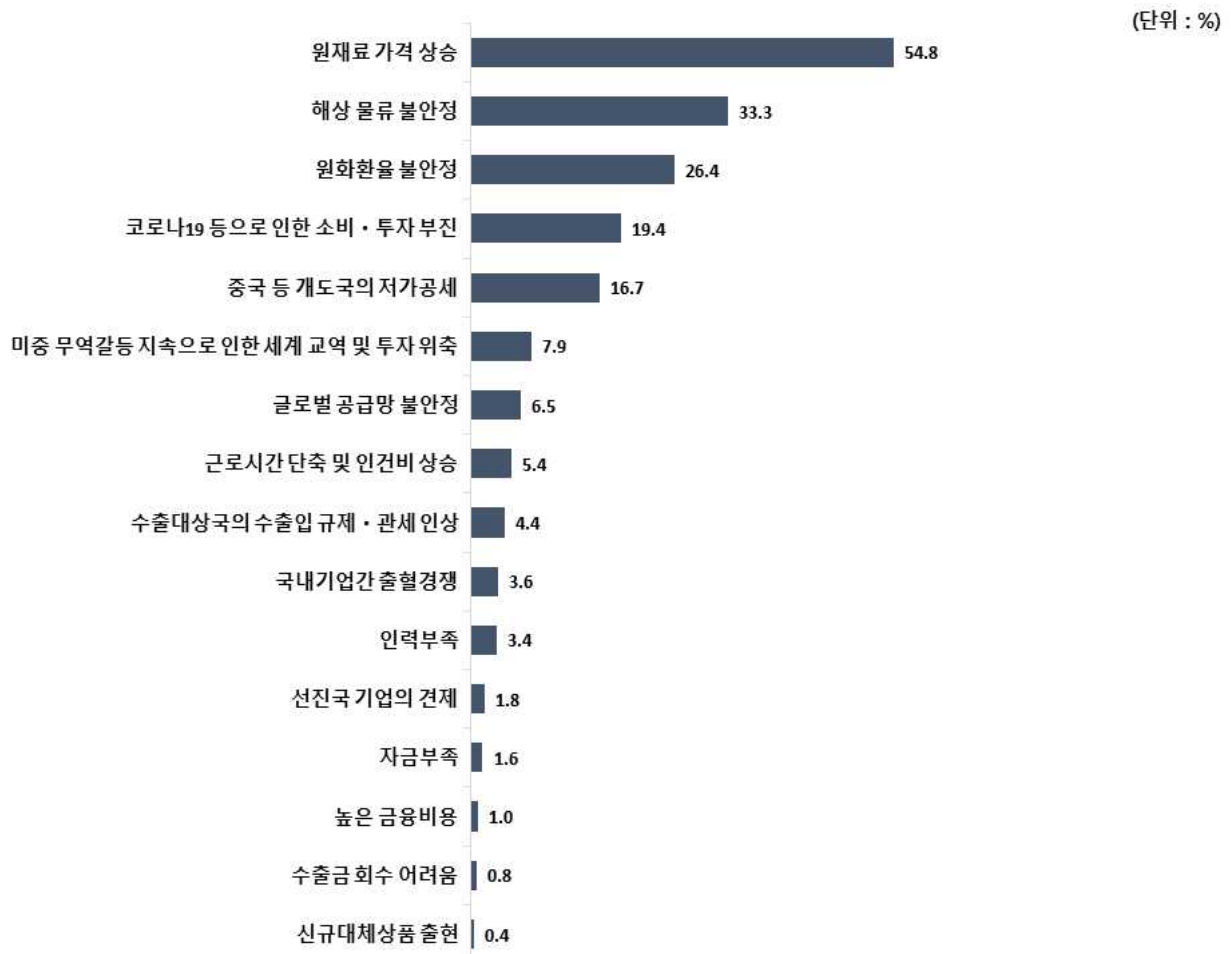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원재료가격 상승’(54.8%), ‘해상 물류 불안정’(33.3%), ‘원화환율 불안정’(26.4%) 순 응답

- 원유, 철광석 등 가격 상승 지속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43.2%→54.8%)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분기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해운 물류난 영향으로 ‘해상 물류 불안정’(32.3%→33.3%)도 전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응답
- 환율 상승 영향으로 ‘원화환율 불안정’(15.1%→26.4%) 응답이 증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31.2%→19.4%) 및 ‘개도국의 저가공세’(22.7%→16.7%)는 감소

‘22년 1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응답 기업 수 504, 1순위+2순위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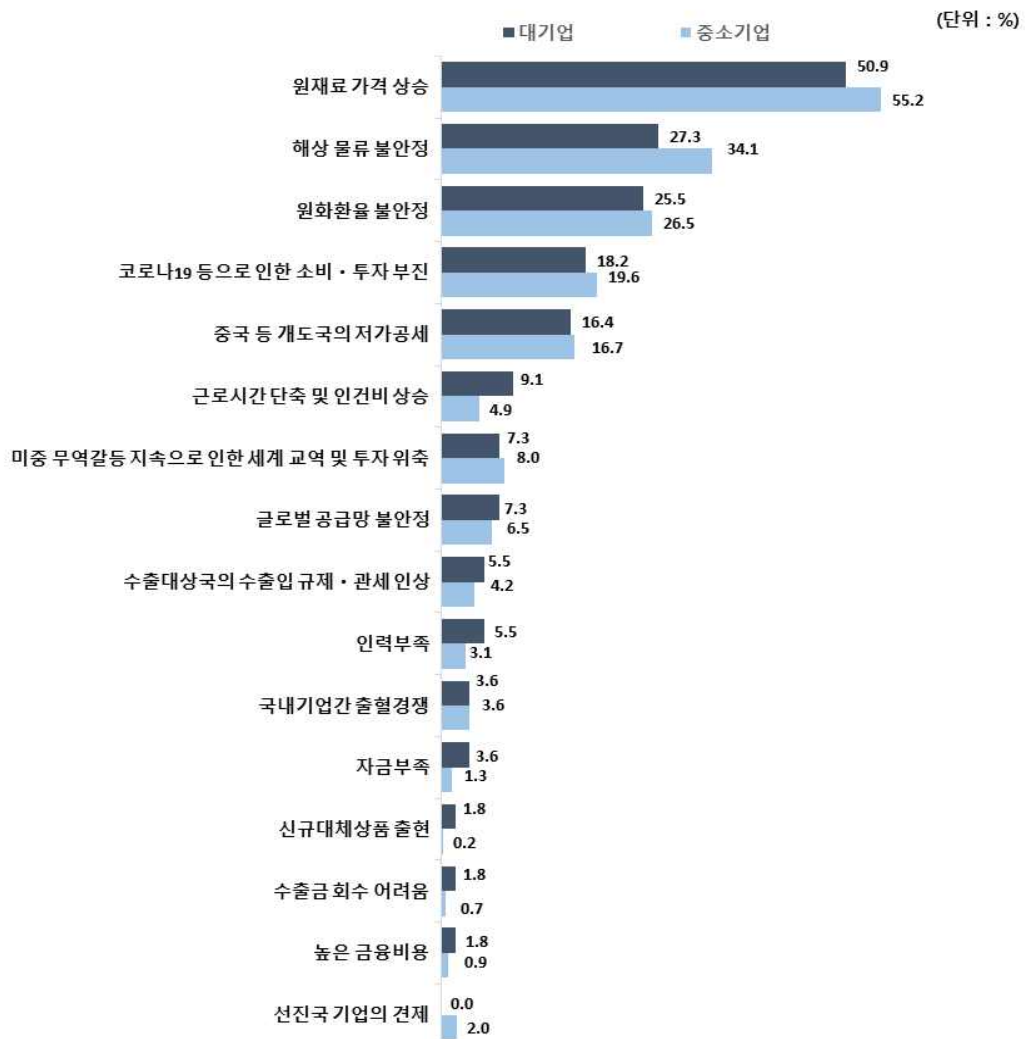




- (산업별) '원재료 가격 상승' 응답률은 플랜트/해건(76.2%), 석유화학(65.8%), 철강/비철금속(64.1%), 기계류(60.2%) 업종에서 높게 응답
- '해상 물류 불안정' 응답률은 해운 운송 비중이 높은 자동차(45.2%), 섬유류(38.9%)에서 높았으며, '원화환율 불안정'은 전기전자(36.6%), 선박(36.0%) 등에서 높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은 대면 서비스 분야 회복이 더딘 문화콘텐츠(37.5%) 등에서 높게 응답
- (규모별) 대기업(31.0%→50.9%)과 중소기업(44.6%→55.2%) 모두 '원재료 가격 상승'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대기업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남.
- '해상 물류 불안정' 응답률은 대기업(25.9%→27.3%), 중소기업(33.1%→34.1%)로 중소기업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22년 1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 기업규모별

(응답 기업 수 504, 1순위+2순위 복수응답)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 애로요인

(단위 : %)

구분		원재료 가격 상승	해상물류 불안정	원화환율 불안정	코로나19 여파로 소비투자 부진	개도국 저가공세	미중갈등 등으로 세계교역/ 투자위축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근로시간 단축 및 인건비 상승
전 체		54.8	33.3	26.4	19.4	16.7	7.9	6.5	5.4
규 모	대 기 업	50.9	27.3	25.5	18.2	16.4	7.3	7.3	9.1
	중 소 기 업	55.2	34.1	26.5	19.6	16.7	8.0	6.5	4.9
산 업	전 기 전 자	39.0	24.4	36.6	22.0	15.9	13.4	8.5	6.1
	기 계 류	60.2	30.6	29.6	20.4	17.6	5.6	7.4	4.6
	철 강 / 비 철	64.1	33.3	26.9	5.1	24.4	5.1	9.0	2.6
	석 유 화 학	65.8	35.6	24.7	21.9	17.8	8.2	1.4	2.7
	자 동 차	55.9	45.2	23.7	16.1	9.7	8.6	5.4	7.5
	섬 유 류	44.4	38.9	25.0	30.6	27.8	5.6	2.8	2.8
	플랜트/해건	76.2	14.3	19.0	19.0	14.3	4.8	9.5	4.8
	신재생에너지	41.7	25.0	25.0	8.3	33.3	25.0	8.3	0.0
	선 박	52.0	24.0	36.0	12.0	28.0	4.0	16.0	4.0
	문화콘텐츠	0.0	0.0	25.0	37.5	12.5	0.0	0.0	37.5
	해 운	57.1	28.6	21.4	21.4	0.0	14.3	14.3	7.1
수출 지역	북 미	59.5	45.1	19.6	13.1	17.0	7.2	5.2	5.2
	중 국	51.5	27.2	28.2	23.3	13.6	8.7	11.7	2.9
	일 본	51.9	23.1	36.5	19.2	23.1	0.0	7.7	9.6
	유 로 존	51.7	36.7	33.3	15.0	20.0	15.0	0.0	6.7
	동 남 아	52.1	27.1	26.0	24.0	18.8	8.3	7.3	4.2
	중 남 미	58.3	25.0	25.0	33.3	0.0	8.3	8.3	0.0
	중 동	64.3	28.6	21.4	28.6	14.3	7.1	7.1	0.0

주 : 총 504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 평가 : 조사 직전 분기
 - 실적 전망 : 조사 해당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22년 4월 4일~8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크기 : 대·중소기업 504개 업체 (대기업 55개, 중소기업 449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평가
	수출단가	평가지수	수출단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생산원가	평가지수	생산원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수출물량	평가지수	수출물량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수출계약	평가지수	수출계약금액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자금사정	평가지수	자금사정의 개선 또는 악화에 대한 평가	

3.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10년=100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2년 1분기부터는 추정 모형 소폭 개정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분	변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경기선행지수 • 외화획득용 일반수입액 • ISM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
수출가격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실효환율
산업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수요 기계수주액